

### 무산·원각 스님, 대종사 법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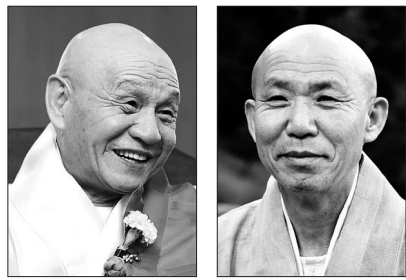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 제51차 회의서 의결

조계종 원로의원 무산 스님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는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5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환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원로회의의 의결에 따라 무산 스님과 원각 스님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한 청담문도회 문장 해성 스님과 함께 오는 4월 20일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풀수받는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내년 3월 종정 스님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오는 12월 차기 종정 선출에 관한 건을 비롯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 9명의 후임에 대한 건 등을 논의했다. 또한 중무보교로는 한전부지 환수추진위원



무산 스님 원각 스님

회 활동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될 원로의원 9명의 후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종정 스님의 후임 선출도 이뤄져야 한다.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는 재적의원 25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 佛心으로 民心 어루만지는 정치 기대

20대 총선, 불자국회의원 55명 당선... 19대보다 큰폭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치러진 가운데 불자로 파악된 후보 55명이 당선 된 것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 46명과 19대 총선 42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숫자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5명 등 총 30명의 불자의원이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15명이 당선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이 당선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 강길부(울산 울주)를 비롯해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이철규(동해삼척) 등 무소속 5명도 당선보를 알렸다.

특히 개신교측서 자신들과 같은 종교적 소신을 가진 후보를 뽑겠다는 등의 몰아주기식 상황에도 승리를 거둔 불자 후보들의 선전에 불교계는 환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정치계의 불교통'인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탈락과 밀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어려서부터 대구 동림사에서 불심을 키운 주 의원은 불교종립 능인고를 나와 2004년 정계에 입문했다. 특히 전통신찰 규제 개선 등 입법활동에 앞섰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을 맡아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불자모임을 이끄는 강창일 의원은 4선에 성공했다. 19대 정각회 회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특히 15~16대 국회에서 활동이 정지된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를 복원했고, 2008년 10·27법안 진상규명과 피해자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기한연장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포지역 후보로 출마해 당

선된 홍철호 의원은 중앙승가대와 인연이 깊다. 먼저 김포지역 불자상공인모임 보현선행회를 앞장서 만든 장본인으로 보현선행회는 김포지역 다문화가정 후원, 청소년 선도활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홍 의원은 김포연등문화축제, 종교화합한마당을 열고 있으며, 종교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는 등 불자로서 종교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부산진읍에서 당선된 이현승 의원은 천태종 삼광사 신도로서 제18대 신도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으로 부산불교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새누리 30 · 더민주 15 · 국민 5명  
주호영 의원 등 무소속 5명 선전  
불교계 강한 영남서 전체40% 당선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에 불자들이 많이 포진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서 초대 청와대 불자회장을 지낸 유민봉 의원이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 의원은 영주 양백정사서 수행과 신행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불철 스님의 유발상자로 특히 간혹선에 정통해있다.

비례대표 13번으로 당선된 윤종필 의원은 1973년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이래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자생도 모임인 보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구에 간호사관학교가 있을 당시 파계사서 신행생활을 펼쳤다. 지금도 예불과 108배, 경전 읽기 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박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4월 13일 해운정사 인근 투표소에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BBS불교방송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이은재(서울 강남구),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홍철호(경기 김포), 이종배(충북 충주), 이명수(충남 아산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광대훈(대구 달서구갑), 정준섭(대구 동갑),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석기(경북 경주),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정갑윤(울산 중구), 김무성(부산 중 영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 김정훈(부산 남갑), 유기준(부산 서동), 배재광(부산 해운대), 이현승(부산 부산진), 이진복(부산 동래), 김재경(경남 진주), 윤영석(경남 양산갑),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임이자(비례대표), 김성태(비례대표), 유민봉(비례대표) 윤종필(비례대표), 김순례(비례대표) (30명)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박용진(서울 강북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이훈(서울 금천구), 추미애(서울 광진), 김상희(부천 소사구),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정재호(경기 고양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구갑), 강창일(제주 제주갑), 오영훈(제주 제주을) (15명)

김성식(서울 관악구갑), 박주선(광주 동구남구), 김경진(광주 북구), 박준영(전남 영암군), 박선숙(비례대표) (5명)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 강길부(울산 울주), 이해찬(세종시), 이철규(동해삼척) (5명)

한편, 이번 불자의원 당선자의 분포는 그동안 종교지형도에서 불교세가 강한 영호남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덕현 기자

### “정법구현 · 문중화합을 최우선으로”

범어사 주지 경산 스님 진산식 · 부산불교연합회장 취임식



금정총림 범어사는 주지 경산 스님의 진산식 및 제12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4월 11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11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서 주지 경산 스님의 진산식 및 제12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진산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서병수 부산광역시,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김세연 국회의원 등 내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방장 지유 스님은 금강경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을 예로 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사를 하였으나 얻은 바도 없고 설할 바도 없는 것처럼 항상 여여하게 정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주지 경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금정총림의 어른이신 방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문중 화합을 가장 막중한 책무로

삼으려 한다”며 “정화정찰로 청정승가 구현에 앞장선 범어사의 뜻이 이어 민중과 불교가 아픔을 겪을 때 마다 기가 호법신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산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부산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아갈 것”이라며 “꾸준한 정진으로 부산불교가 시대와 우리 사회의 울창한 숲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스님은 1963년 파계사로 입산한 이후 행자시절 10여 년 간 성철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했다. 또한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 상좌인 범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해인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스님은 1971년 졸업하여 1972년부터는 범어사 금어선원 3년, 오대산 청량선원 3년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하성미 기자

### 법원 “종교지도자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일침

총무원사 점거 과정에서 폭력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 등 4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태고종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4월 12일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구속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에

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태고종 총무부장 D스님과 비대위 호종국장인 J스님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외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나머지 7명 스님에게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강성훈 판사는 “피고인 스님 중 한 명이 성명서에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

는 어떠한 물도 받아들이지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라는 말을 인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수년간 보여 온 갈등과 재판에 임한 자세 등을 볼 때 과연 넓은 바다를 지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엄중 문책했다. 이어 “작은 호수 영역을 닦아 싸우다 자기들만의 웅덩이를 만든 형국이며, 호수에 안주하기보다 설령 증발할지언정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워야 한다. 종법이 속세 법보다 우선한다지만 그 기본정신은 말과 행동에 응분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이라고

포박했다. 또한 강 판사는 “만약 이번 재판을 어린 학생들이 보고 피고인들이 왜 재판을 받는지 묻는다면 말문이 막혔을 것”이라며 “종교지도자이기 이전에 다른 어른들 행태로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은 각각 4월 초 대리인을 통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적 합의했으며,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종단사태 수습책을 마련한 바 있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 태고종 수장 실형 판결... 종단 큰 충격 휩싸여

영원한 안식의 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 잘 때나 한 순간도 ‘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행한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대나무가 백백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첫 법문 (오후 8시, 2년이내)  
■ 장 소 :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 문 의 : 042)825-1724

